



업종

제조업

위치

대한민국, 대구

도전과제

증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의 가상 서버로의 통합

통합을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안정성은 강화

솔루션

VMware vSphere Enterprise Plus 4.0

비즈니스 혜택

- 물리적 다운타임을 최소화한 서버 시스템 통합
- vCenter로 검증된 용이한 기간제 시스템 관리
- 신규 시스템 도입시 가상화 환경을 우선 적용한 비용 효율적 확장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여 서버 대수 감소와 에너지 사용량 절감

1954년 설립된 에스엘 주식회사는 반세기 동안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종 램프와 샷시 등, 자동차 핵심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수준 높은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유럽, 북미, 중국, 인도 등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인정받는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CO 절감 효과 극대화 / 가상화 통합 관리 인프라 확보

자동차 관련 핵심 부품 생산 환경에서는 국내외 산업 표준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환경은 대부분 유닉스 시스템이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x86계열의 서버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을 지원하는 IT 환경에서는 기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스엘은 환경 개선을 위해 VMware 솔루션을 이용한 가상화를 채택했고, 특히, VMware vMotion이 제공하는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자사의 시스템 재구축에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운영을 체계화시켜 확실한 TCO절감을 현실화했으며, 더불어 노후화 된 x86서버 20대가 담당하던 웹 서버 영역과 이와 연계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5대의 물리 서버 시스템으로 가상화 통합시켰습니다.

“유닉스와 x86 모두가 VMware로 가상화 통합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단일 통합 관리 콘솔 덕분에 시스템 관리가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사적 데스크톱 환경을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왕승엽 과장

에스엘주식회사 경영시스템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환경의 완벽한 가상화

사내외 통합 메시징 환경을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를 불규칙한 다운타임은 에스엘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버 가상화 작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VMware 솔루션을 기반으로 통합된 실제 환경은 이를 너무나도 유연하고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hare Point 포털 및 검색용 인덱싱 서비스를 함께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체 IT 인프라의 관리 포인트 증가를 억제한 결과, 물리적 서버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 통합 이후 구현된 가상화 환경에서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가용성 클러스터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했으며 가상화 통합 이전의 업무 환경보다 훨씬 더 유연한 무정지 업무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에스엘의 IT 업무 환경뿐 아니라 기업 본연의 업무 환경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확장이 용이한 가상화 솔루션

vCenter의 관리 인터페이스는 가상화 환경이 생소한 IT 관리자들도 직관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서버 기반의 업무 사용량 증감 예측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정에 없던 사용자의 IT 리소스 요구도 즉각적으로 수용 및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에스엘의 주요 생산 업무를 지원하는 중대형 프로젝트 인프라를 최단기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화 관리 환경은 시스템의 물리적 장애를 아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에스엘의 생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물리적 시스템 자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기존의 IT 관리자가 보다 발전적인 업무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